

부산, 그린화학 중심산업으로 육성

10대 전략산업 전면 개편키로 ... 에너지·수송·조선 포함 4개로 재편

부산시가 정부의 동남권 광역 선도사업 개편에 맞춰 10대 전략산업을 전면 개편한다.

부산시는 기존 핵심전략 및 미래전략 등 2개 분야, 10대 산업으로 구성된 10대 전략산업을 6월1일 확정된 정부의 동남권 광역 선도사업 개편 내용과 부합되도록 에너지, 그린화학, 수송, 조선 등 4개 분야로 재편한다고 6월2일 발표했다.

기존 10대 전략산업은 핵심전략 분야의 해양·기계·관광·영상산업, 미래전략 분야의 금융·고령친화·의료·디자인·에너지·생활소재 6개로 구성돼 있다.

앞으로는 풍력과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, 화학융합의 그린화학, 기계·자동차·항공 등 수송, 선박과 해양플랜트 등 조선 4개 분야, 8개 중핵업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.

부산시는 6월 전략산업 개편 보고회를 하고 3-5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12월경 전략산업 육성 조례 개정과 개편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04>